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백이산의 함안층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양승영¹, 백인성², 김태완^{*3}, 서승조⁴

¹경북대학교, ²부경대학교, ³청구고등학교, ⁴진주교육대학교

요약

2005년 2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백이산 서북편 계곡의 태산암에 분포하는 함안층에서 약 100여개의 조각류 및 용각류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연구 지역의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 Cenomanian 초의 시대에 해당한다. 연구 지역의 함안층은 진동층과 유사한 호성 퇴적층의 양상을 보이며, 층내역(intraclasts), 다양한 형태의 건열 구조 (즉 곡선형, S형, O형 등), 연흔 및 점이층리와 같은 퇴적 구조가 관찰된다. 그리고 연흔 구조는 대칭형의 파랑 연흔이다. 연구 지역의 함안층에서는 3회의 윤회 퇴적 양상이 관찰되며 이는 단기간의 기후변동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지역의 공룡 발자국은 이족보행의 조각류와 사족보행의 용각류의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초식성이다. 육식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각류의 발자국은 모두 중형의 것이고 용각류의 발자국은 대형과 중형의 것이었으며, 보행열의 방향은 제각각이며 이는 다양한 목적으로 배회한 자국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보행속도는 시속 500m 내외로서 매우 천천히 거닐었다.